

COR. I - 574



吉慶如意

如意吉祥

大吉



말꽃복음례일장

하나님의 아달 예수 그리 쓰토 목음의 처음이 라션자이 사야 써사 되보라
나
가니 의사 자 룰드의 암페 보니 여느의 끝을 채 비하고 돌에 셔불이 노자의 소
리 갈오되 주의 금을 예비 하며 그대로 룰션적 게 허리라 험갓치를 게 밥팀례
룰 베풀꼬 회기의 밥팀례 룰던 하여 셔죄를 샤제하는 요 안니 굴이 니 오운유
더싸파예루 살입사람이 다나아 와스사로 죄 룰말흐 꼬밥팀례 룰율단 기굴
에서 밧다라요 안니는 약 더 ^설을 껌꼬 가죽 씨 룰허리에 꾹 꼬억는 거 손듯벌
기와 들에 청밀이 드라 ^연하여 갈오 ^되니 뒤에 오는 자 나 룰이 길지니 굽어 그
신들 미론 ^풀지라도 나눈 감당치 못 할 거시나는 니 히 룰굴에서 밥팀례 ^하되
오직 ^데는 니 회 룰성령에서 밥팀례 ^하리라 ^흐드라 마 창 그 ^되게 예수가 니 니
나 살잇스로 부터 와요 안니의 밥팀례 룰율단 기굴에서 밧꼬 꼬풀노 말무 암
아 올나가 다가 하늘 ^이열니 꼬성령이 비들기 갖치 그 우에 강남하 물보니 또
하늘노부터 소리 이스되 너는 니 의사랑 ^하눈아 달이 니 나 룰것 ^거호 눈바라
하더라 꼬성령이 감동하 ^여들이에 가제서사 ^{십일}에 시험을 사단이 ^게보와

풀즈심으로더부럽혔고이소니사자섬이다라요안나갓친후에예수가나
니에와하나님의복음을들은호례갈오샤더다가차꼬연국이갓가와소니회
기하고복음온밋으라하다라가나니히변에횡하다가시몬파그동성안드
랴그물을바다에더지물보니티눈꼬기잡는사람기라예수갈오샤더나풀
좆트라나비히로사람울엇는쟈되께하리라하나티즉시그물을버리꼬좆
더라거괴로죠금나아가다가시비뒤의아말야곱파그동성요안나풀보니
비에서그물을김거늘이여풀우니아밤시비뒤와훔고흐던삭군율비에서
작별하고좆드라가헬남에나아가사밧일에회당에들어가가라치니듯사
름이그가라치풀고괴히비기문그가라치미권병잇는쟈갓묘천비갓지안
이미드라회당에터려운귀신품은사름이이서풀더갈오되나살잇예수야
우리네로터부리어드려기비와서우리풀망하나뇨나가더풀뉘줄올아는
거시하나님의성호노쟈라하니예수착망하여갈아샤되입닷꼬나오라하
민터려운귀신이그사를울지루께하며큰소리풀우제기꼬나오니못사
름이이상하기로서로풀어갈아되어었지며이었데훈신도가되었세로썩

더러운귀신세지명호미순종한다하여 그명성이 끗사방가니니싸에 허여
지드라회당에나와야곱파요안니로터부려시몬파안드랴의집에들어가
니시몬의장모연병호여누워죽시예수이게고호니예수나아가그손을잡
아늘이치니연병이썩나거눌이여션니드라날아져물더여모단병호며귀
신부튼쟈를다리묘나아와온묘이문에모이니예수각양병호는쟈를만
여못치며귀신을만이쫓고귀신의말호기룰허치안이문그자고를알이라
신박에예수들이나가들에가거고비는되시몬파호과잇년쟈살나만니
여갈아되못사름이쥬를찾나이다호니갈아샤되우리달은곳에가쟈년읍
성촌에도루부흘거시니가이를위하여왔다호꼬이여오은가니니의회당
에들어가도루투하며귀신을쫓드라빅남풍인눈쟈나아와물어구하여갈
아되쥬아만약즐기시면느하나풀간정케흐소서호니예수어엿비비계손
울핏쳐만져갈오샤되너슬며하니너간정호라호미이여빅남풍이덜니꼬
간성호니예수엄이경게하고즉시보너여가게호여갈아샤되삼가사름의
게말호지말꼬오직가스사로제사으게보이코노비의간성하물위호여모

내 마음상으로 더 부끄러운 그 이 소니 사자 셈이 다 라요 안내 갓 친후에 예수가 니
니에 와 하나님의 복음 올린 그 객 갈오샤 디디 가차 꼬련 국이 갓 가와 소니 회
기 헤 고복 음을 맛으라 헤 다라 라니 봄에 헝하다 가시 몬파 그 동성안드
랴 그 물을 바다에 더 지 물보 죽 라니 냐히로사 름을 사 사람이라 예수 갈오색 디나 룰
좆 죽 라니 냐히로사 름을 봄에 헝하다 가시 몬파 그 동성안드 라거 괴로 죠금나아가
더 라거 괴로 죠금나아가 봄에 헝하다 가시 몬파 그 동성안드 라거 괴로 죠금나아가
비에서 그 물을 깁거 날이 죽 떨 헤 봄에 헝하다 가시 몬파 그 동성안드 라거 괴로 죠금나아가
작별 헤 고 죽 드 라가 빛남에 봄에 헝하다 가시 몬파 그 동성안드 라거 괴로 죠금나아가
룸이 그 가라 치 물고 괴히 비기 봄에 헝하다 가시 몬파 그 동성안드 라거 괴로 죠금나아가
이 미드라 회당에 더 려운 귀신품은 사 름이 이서 불되 갈오 되나 살잇 예수 야
우리 너로 더 부끄러운 드리기 비와 셔 우러 룰방 헤 나뇨니 가너 룰뉘 줄을 아는
거시 하나님의 성호는 자라 헤 니 예수 척망 헤 여 갈아 샤 되입 닷 꼬나 오라 헤
민더 러운 귀신이 그 사 름을 져를 께 헤 머 큰 소리 룰물 우제 기 꼬나 오니 뭇사
룸이 이 양호기로 서로 물어 갈아 되이 엊지며 이 어데 훈시도 가네 괜세로 써

더리운귀신새지명호민순종^한다하여 그명성이 끗사방가니니싸에 하여
지드라회당에나와야 곱파요안니로터부리시몬파안드랴의집에 들어가
니시몬의장모연봉호여누워죽시예수^이게고호니예수나아가그손을잡
아들이치니연봉이썩나거눌이여션^이드라눌어져물더여모단봉호여귀
신부튼쟈를다리고나아와온묘을이문에모이니예수각양봉호는쟈를만
여곳치며귀신을만이쫓고귀신의말호기룰허치안이문그자고리를알미라
신박에예수들어나가들에가거고비^이비눈^되시몬파호^고잇던쟈쌀나만니
여갈아되못사름이쥬를찾나이다호니갈아샤되우리달은곳에가쟈난읍
성촌에도률^률로흘거시니가이률^률위호여왓다호고이여오은가니니의회당
에들어가도률로하며귀신을쫓드라빅^빅납^납풍^풍인^인눈쟈나아와 쿨어구하여갈
아되쥬아만약즐기시면^는하나률간정^제흐소서호니예수어엿비비^비거손
울핏쳐만적갈오샤더너슬비하나너간정호라호민이여빅^빅납^납풍^풍이델니고
간성호니예수엄^엄에경^경게하고즉시보니여가게호여갈아샤되삼가사름의
게말호지말묘오직가스사로제사^으게보이^고소비의간^간성^성하물위호여모

쇼의 병호 바울이 려서 뭇사람이 게간증을 삼아라 헤 되다못 그사람이나 가
비르 소만이 쿤호 여 그일을 해 친묘로 예수는 히발기성에 드지 못하고 밟그
로들에 이사 되사 둘의 사방으로 말무 암아나 아오더라

말곳복음데이쟁

수일을 지니여 예수 다시 가빌남에 들어가니사람이 그집에 이사 물듯 묘사
론에 만이 모여 문암새지 용남을 봐 이업케 하는지 라이 여도 훌말호는 뒤한
나바람중호는 자를 놔사람이 메고나아오」사람만이 룰인호여 시리금갓
가히 못하고 그잇는 바진정을 구명 둘러 헌후에 바름증하는 자는 온상 칙니
량보니니 예수 그미드물보고 바름증호는 자으게 일이 샤되 쇼자야 비죄를
샤호다. 흐니마참션 비수인이 거리 안젓다가 마암에 의론하되 이사람 어엇
지이 갓치 말호나뇨 참남호다하나님이 안이면 뉘는 히죄를 샤호랴 흐니이
여 예수마암에 그이 갓치의 론하 물알고 일으샤되 너희 엊저 암에 이룰의
론호나뇨 바람증하는 자으게 비죄 샤호다 일으는 것파별이네 상을 가지꼬
힝흐라일으는 거세어니 거시 쉽갓나냐다 못너희로 인자싸에서 죄 샤하는

권세이사물알게흐리라흐고이여바람중눈쟈의개오갈샤더니말흐노
니널어나비상을가지고집으로돌아가라하니더널어나곳상을가지고못
사룸의암페셔나가니다이상흐여하나님영화하여갈아되우리종국이갓
타물보지못흐엿다흐드라예수다시히번에나가니못사룸이나아오거날
이여가라치다라행홀썩에알비유의아달리위세쇼에안저사물보교갈오
샤더나를좇초라하니이여널어좇드라맛참그집연석에안즈미열어세판
파죄인이예수와데자로돛클함고하문좇는쟈만오미라바리신의션비가
세판파죄인으로터부리함고밥먹으물보고그데자게일오더세판파죄
인으로터부리음식흔다하니예수듯꼬갈오샤더건장한쟈눈의원을쓰지
안이흐꼬오직병하는샤야하나니너가오기눈올흔사룸을불우미없이오
오직죄인이라하다라요안느의데자와바리신인은진게하는더너의데자는진게치안이미
아되어안느의데자와바리신인은진게하다가나아와갈
엇지냐하나예수갈오샤되신낭파함고이살썩여경하흐눈쟈능히진게흐
랴오히려신낭파함고이살적에눈능히진게치국흐고오직쟝느신낭울다

그가 물론후에 전게하나니 라신 무명으로 헌옷김우미 업나니라 그려면 기
우거시 안고 널어나신 거사 헌거스로 안고 터지미 더욱심하 고도사람이 신
술노썩 헌피디에 베으미 업나니라 그려면 술이 그 피디 를터 쪽술파피디다
망홀지니 오직신술노썩 시피디에 넷나니라 맛참사 밧일에 예수 꼭석 밧출
치니 눈데자 흥호늘썩여 꼭석이 삭울싸니 바리신인이 일오되 보라 데사 밧
힐에 합당치 안인 바를하문엇지 뇨하니 갈아샤 되너희다 빗파밋 콧는 샤핍
호여 비꼽풀썩여 혼바를오이 지못하겠나니 아빠 달제사장 되여 슬썩여 엇
치하나 님의 등에 들어가 진설한색 올먹어 사니 끗제사안이 꾸는 합당치 안
인거슬도 한노나 콧는 샤를주었다 하고 또 갈아샤 되사 밧일이 사람을위해
여 베풀거시 오사람이 사밧일을 위한 거시 안이라 일노썩 인자도 도한사 밧
일의 주인이 되노라 하더라

말꽃목음데 삼장

예수도 회당에 들어가니 거리사람이 한손말은 샤이 소니 뭇사람이 그사 밧
일에 끗치 물엿보와 죄주 려하니 예수 손말은 샤으개 갈으샤 되 배널어셔라

헛고 뭇사람의 게 말하되 사방일에 선은 향하고 악을 향하고 파상명을 구완하
 며 성명을 쥐기 눈거세어 니 거시 함당하니 놔니 뭇사람이 뭉연하고 거눌이 여
 노호고 뭇사람을 둘러보고 그마암궁이 물근심하고 그사람에게 말하샤되
 비손을 폐라 하미아여 폐치니 그손이 소복한지라 바라신인이나 가해롯의
 당으로 흠과도 모호여 엇지 써망하고 게 흐려하더라 예수데자파 흠쁘바다에
 나가 열어사람이 가니 니로 쪽표 유단과 예루살임파이 두민와 욕단방파투
 로와 시론의 부톤허다 한사람이 그朝廷한바흔일을 듯고니 아오니 예수데자
 외게 말하여 져근비로 기달이다니 사람이 만아동위하물면 흐문 그사람 뭇
 치미만은 표로 질병잇는 자다갓나 하다들이 만지우 표져하마라 덜어 유귀
 신이 보면 그 압폐업터 어불되 갈아되니 난하나 님의 아달이라하니 엄히 경
 계하시되 써해치지 말나 흐더라 산에 올나그 흐고 써하는 바로불운사로 둘
 이나 아오거 날이여 열두 줄자고 파 흠과하게 흐고 보니 여도 둘더 하며 쏘귀
 신 쏟는 권세를 잇게하니 피들이라 월홀준시 몬파시 비단아 아달야 꿈파야
 꿈의 동성요안 니 일흔을 보안일기라하니 꽃우례의 아달이라는 뜻이라 쏘

안드 랴와 비립파발도로인와 마티와도 마와 알비의 아달야 꼽파 닷디와 가
니니의 시몬파밋이 쓰카료유다니이 곳 예수를 팔쟈 터라이 여집에 들어가
나뭇사름이 다시 모여 밥도 먹지 못하고 가사니 그 친속이 듯고 나가 당고고 져
하여 그 멋쳤다 일으나 션비 예루살임으로 부터 오는 자 같아 되데 빌시 불을
풀어 귀왕으로 써 귀신을 쫓는다 하니 예수 불너비사로 써 말하되 사단이 엉
지 능히 사탄을 쫓추라 만약 나라 이 서로다투면 그나라이 능히 셔지 못하고
만약 집이 스사로다 투면 그 집이 능히 셔지 못하고 만약 사단이 물어 스사로
닷투면 능히 셔지 못하고 멸하니 나라 사름이 능히 날넨쟈의 집에 들어가 그
물건을 탈취치 못하고 반다시 만져 날넨쟈를 얼미면 후에 그 집을 탈취하느
나라 니 실노녀 희게일오니 무론 죄파 무론 참남한 말하노 바사름은 면하고
되오직 성령을 참남하노 자는 길면 치못하고 영원죄잇느 나라 하문데 데의
말이 그 데어 운귀신품었다하 미더라 예수의 어맘파동성이 널이 럽 밧게 셔
서 사름을 보니 여 청하니 열어 사름이 둘더 안처고 하여 갈오 되주이 어맘파
동성이 밧게 셔 찾느 아다하니 디간 하여 갈아샤 되누가니 이 어媽이 벼느의

동성이 나호고이여 둘니 안존쟈 르를들아 보와 갈아샤 더니의 어맘파 동성을
보라 무론하나님의 뜻을 험호는 자는 나의 동성파 누이 파어 맘이라 하더라
말곳복음데사장

예수 다시 히번에서 가라 치는디 허다 호사람이 모여 나아오거 날^비에 올나
바다에 셔 안고 뭇사람은 바다를 젓고 두던에 셔 소니이여 비사를 둘 베 푸리
열어 콧트로 써 각라 쳐 갈아 샤 더 둘^{이라} 농군이나 가종자 를 헤치니 나라 헤
칠석에 마참^걸겠 티 써 러 진거손신 가늘^이리 먹고 또 둘식^시 리 토박 훈데 써
리 진거손 힐이 깁지 못^하 둘인^하 여 그 어음이 속 키 발^하 되^하 가나 죠 인^즉 불
이 업^스 물인^하 여 말^고 또^고 가식^온 데 써 러 진거손 가식^가 성^하 여 짓^눌 너
결실^치 못^하 게^하 고 죠^고 혼다^에 써 러 진거손^발 호^고 자^리 여 결실^이 혹^삼 십
비^혹 뉙^십 비^혹 일^백 비^이 되^하 그^라 험^고 또^고 갈아 샤 더^귀 이^스 면^둘 이^라 험^하 더
라^예 수^혼 자^이 살^서 에^죽 눈^쟈 파^열 두^데 자^이 비^사 를^물 은^되 갈^아 샤 더^하 나
님^이 나^라 비^결 은^너 히^를 주^고 오^직 외^인 의^게는^다 비^사로^써 험^문 그^눈 으로
써^보 고^도 발^지 못^하 머^귀로^써 듯^고 도^세 닷^지 못^하 여^접 푸^건 도^리 워^써 면

호^호 미라^호 꼬도^호 갈아^샤 님^희 이 비사^{률통} 달치^못 호^나 엇지^모 단비^사
률^알냐^봉 군^은 도^률 련^호 눈^쟈 요^길 경^티 써^리 진^거 손^도 련^호 측^끗 사^름 이
드^르 미^사 탄^이 즉^시 날^이 려^그 속^에 혜^친 바^도 룰^아 눈^거 시^오 꼬^도 둘^식 신^리 에
혜^친 거^손 사^름 이^도 룰^듯 꼬^끗 즐^거 바^드 되^오 직^안 에^불 이^업 서^거 우^잠 시^호
다^가 도^룰 위^호 여^환 란^파 군^박 이^날 으^며 멋^처 눈^샐 이^세 우^는 거^시 오^가 스^기 가
온^느 혜^친 거^손 꾼^사 톤^이 도^룰 들^이 미^이 세^상 봄^네 파^진 전^의 미^혹 파^모 단^률
욕^이 들어^도 룰^짓 늙^은 즉^결 실^치 목^호 눈^거 시^오 죠^흔 싸^에 혜^친 거^손 꾼^사 톤^이
이^도 룰^듯 꼬^바 다^결 실^이 혹^삼 십^비 혹^눅 십^비 혹^일 빅^썩 이^스 되^는 거^시 라^호
꼬^소 갈^아 샤^되 사^름 이^등 셜^온 가^져 말^알 에^파 상^알 에^둘 야^화 디^우 에^놋 치^온
으^랴 은^밀 헌^제 시^낫 타^니 지^온 으^며 감^춘 거^시 지^지 온^이 미^업 님^희 라^귀 이
스^면 들^으 라^도 갈^아 샤^되 너^희 들^은 바^룰 삼^각 호^라 너^희 무^삼 말^노 써^사 름^의
게^되 면^장 차^고 말^노 써^너 희^게 되^꼬 도^터 주^리 님^희 앗^는 사^눈 더^주 괴^업 꺾^쟈는
그^잇는^바 새^지 도^호 장^차 아^스 미^라 써^갈 아^샤 디^하 나^님 나^라 이^사 름^이 종^자
룰^싸 에^혜 침^갓 탄^거 시^밤 낫^자 괴^서 며^종 즈^가 발^호 여^자 립^되 그^글 어^호 바^룰

아지못하문따 이스사로곡석을성하되처음에 엄니고니여발수하꼬후에
 이삭이성실하니니성실한즉낫출쓰문거둘싸늘이미라도갈아샤더니엇
 지썩하나님나라를비기며무삼비사로써나타니랴호알며즈종즈갓타니
 싸에혜칠석에눈비록세상모단종즈에지극기적으되해친즉성장하여모
 드친소보담크꼬또큰가지를발하여공중에사가그괴들에깃들인다하더
 라색만이이갓단비사를베푸리못사람이듯는바능간을의지하여도를말
 흐되다못사온인즉말하지온이하꼬종용호한석에다테자로터부러히리
 하더라이날져풀리에데자게갈오샤더우리티_kv_전두현에건너가쟈하미못
 사룸울떠는후선파갓치예수비에올이니도호달은비이서함씨하는두큰
 바람이날어둘결이비에들어거의차되예수비쌀이에서베기하꼬자거날
 데자기와같아더션성님우리망하물도라보지온니잇가호니예수세여
 바람을최망하꼬바다를향하여갈아샤단잠잠하고안성하라하니바람이
 이여멋꼬크게온성하는지라이여갈아샤더너희엇지무_현하며사로밋
 으미업느냐하니못사룸이심히두려워서로말하되이엇두사룸이뇨바
 람

파바다이 쇼호순종훈다하더라

말곳복음데오장

바다여전두년기라신싸에널그리비에느리느니
이무덤으로붓터나오다가만느니느는무덤에거하는니
또호느히얼미미업스문풀어번꼬락파쇠사슬에얼미이워쇠사슬온선너
여꼬락을부서려쳐맛참느억제흐힘이업스미라밤낮늘무덤파산에셔부
루제기꼬도돌노썩스사로상호눈지라멀느예수를보꼬다라와절하고콘
소리로불너갈아되지극끼눕푼하나님의아들예수는느부즈로터부려느
어들어느니잇가느하나님을부탁하여부자게구느노느나를멀텐께말이
소서하문예수일즉말하샤디비터리운귀신은그사람의게느오라하미라
이여물우샤디비무삼일홈이냐하니갈오되느일홈은군이라하문우리만
으미라이여간절이예수개구하되이싸에나가지ون게하라다느거기큰무
리듯치이서산에셔먹거날귀신이구하여갈아되우리를보느여듯트게드
락가게하소서하니예수즉시허하거날귀신이나와듯트게드려가니그무

리산거들마기애 쑤여니 려바다에 터지니 이천가량이 바다에 빠지더라 목
인 이 달아 성방에 고호니 뭇사람이 나와 호는 바를 보고 져호여 예수의
게나 아가귀신품었던사람 끗군의 게붓튼바 되엿던쟈 안저웃슬립고 텐연
흐물보고 무서워호니 본쟈 귀신품었던쟈의 니려파돗트일노색 뭇사람의
게고호니 뭇사람이 예수의 게구호여 그디경을나가라호더라비에 올을 씨
에귀신품엇던쟈 더부려함쓰호기률구호되 예수허치온이호고 갈오샤더
비집에 돌아가 너의 친척의 게나 아가주네게 흉호바엇더게 큰일파 너를 어
엽비네 긴쟈로 써고호라호니 티가셔디가포리에서 예수자고 게 흉호바 큰
일을 떤호니 사람이다그리히네기더라 예수비를 타고 다시 티전 두 텐에 건
너가니 허다호사람이 모여나아오는 저라 티히변에잇는디 회당차지호는
쟈의 호나 일홈은이로라와 셔보고 그발알에 업더여 간절이 구호여 갈아두
느니의 얼인딸이 거이 죽어가니 쥬나 셔손으로 써안찰호여 낫게호즉 살니 이
다호니 예수함쓰각눈더허다이조차옹위호는지라호나 부인이 디히 중열
두 히에 열어의 원의 게 슛탄고상호 꾸잇는바를 다허비호여스 되유의호미

업고 병은 도리여 더 헌지라 예수의 일을 듯고 뭇사람 가온디 석계 그 뒤에나
아가 그 옷슬민지 문말이다 못 그 옷슬민 진즉 나리라 하미더라 더히 증근원
이 즉 시 멎고 몸에 병이나 으물찌 닻갓는지라 예수 능호 미자고로 나오 물알
고 곳 몸을 뭇사람 가온디 돌이 워갈아 샤더 뉘가 니 옷슬민지니 나호니 데자
갈오 되쥬 뭇사람이 옹위호 쿨보고 뉘가 나 쿨민지니 나호니 니잇가 예수 두
루 보와 이 롤 힝호 부인 올보고 져호니 부인이 두려워호 꼬썰며 자고 게일운
바를 알고 나아와 그 압페 업더 여다 참으로 썬고 호니 예수 갈아 샤더 베인 아
너의 멋으미 너를 구완호 노니 편운이 돌아가라 병이나 이리라 호더 라 말 훌
썩에 회당 차지 헌자의 집으로 오는자 갈아 되쥬 인님의 딸이 죽었는디 엇지
사로 션성 올피롭게 하니 잇가 하니 예수 일으노 바 말을 들크 회당 차지 헌
자의 게 갈아 샤더 무서워 말나 멋을 다름이라 하고 피들파야 꼽파 그동성요
안니 외에는 달온 사람 함쓰 콧기 롤허 친온 코회당 차지 헌자의 집에 널으려
분요 흄파 우는 것파 이 통호 눈자 롤보고 들어가 갈오 샤더 엇지 분요 이우느
냐 아희죽 으미 업고 잔다하니 뭇사람이 웃거 날이 여보니 여다가 꼬아희부

모파함씨호는자를다리고아히잇는바곳에들어가그손을잡고갈아샤다
타리다구미라호나산간죽의이야니너풀말호느니널어느라는뜻이라.여
이즉시널어나도횡호다니나흔열세살이더라못사람이크게혼나니이여
엄이경계호여사람으로알게말나호고도명호열호이밥을주라호더라

말꽃복음례국장

예수거기서나와본디에돌아오니퇴자죽더라사방에회당에서가라치
니뭇사람이듯고경동호여갈아되이사람이어디로말무암아이를어드며
타는바지해가엇더호여이갓치등호물그손으로횡호느니이목슈오꽃마
리암의아달파야곱파요시와유다와시몬의동성이운이냐그누히각여괴
셔우리파함씨운느냐호꼬이여새리세니예수갈오샤다션지가본토와친
척파집은외에는눕지운으미업다호꼬거기서능호물횡치운이호꼬오직
손올들이멧병인의게안친호여꽃기고도의잇지언이풀괴괴히비겨두
로모단마을에만나며가라치더라도열두데자루불더둘식보니눈더귀신
쫓는권세풀주며명호샤다노용온가지지말며오직지팡이만가지꼬혹썩

甘혹사로파혈이에온울가지지말고오직신신고두벌웃슬남지말나하고
도갈아샤되어니곳이든지집에드려가거흐여갈적거지이스라너희를더
접지운으며너희룰듯지운눈쟈잇거던거그롤나갈썩에너희발에몬주를
텔어썩간증울삼으라하니데자나가사름울회기게련하며만이귀신울못
추며만이기름으로썩병인의게발느곳치더라하롯왕이들으문그일홈이
나타느미라이여갈아되밥탐례를베푸던요안느가죽이무로붓터난꼬로
능흐물횡훈다호니혹이갈아되이니야라혹션지라혹션지의훈다갓다호
니혜롯이듯고갈아되니버인바요안느죽이므로널엇다호더라하롯아처
음에사름을보니여요안느룰잡아옥에가도문그동성비님의쳐혜로다룰
취호연꼬로요안느간흐여갈아되왕이동성의쳐룰취호미합당치언타흐
니해로다이여더탕흐여죽이꼬져호되엇지못호문혜롯이요안느룰꽁경
흐며그사름리마올코노성인인줄알아돌아보꼬더듯기룰주져호꼬도깃
거들으미라마참그회의날을만느니곳혜롯의성일이라연석울비셜호고
모단두부와천총파밋가니느의눕푼쟈룰잔체호는디혜로다이딸이들어

와 춤추워 혼파함 씨안존쟈를 급푸게 흥니왕이 이게일오 도비 하고 져
호는바를니 게구 호죽 너룰주리라 하고 위 하여 밍 세 하여 갈아 되 비 나 게 구
호는바는나라 절반이라도반다시 너룰주리라 하니 녀이 나 간 그 어 맘 게 일
오되 니무어 슬구 하리 오 하니 갈아 되 밥 팀 례 룰 베 푸 는 요 안 나 의 멀 이 라 하
거 날 이 여 쌀 나 들 어 가 왕 을 보 꼬 구 하 여 갈 아 되 하고 져 하는 거 손 밥 팀 례 룰
베 푸 는 요 안 나 의 멀 이 로 썩 소 반 에 담 아 나 룰 주 소 셔 하 니 왕 이 심 히 근 심 하
나 클 어 나 밍 세 파 도 듯 게 안 존 쟈 룰 위 하 여 즐 거 물 나 치 지 못 하고 즉 시 군 사
룰 보 니 여 명 하 여 그 멀 이 를 가 져 오 라 하 니 이 여 가 옥 에 션 버 여 소 반 에 그 멀
이 를 담 아 타 이 룰 주 미 타 이 썩 어 맘 의 게 들 이 거 날 그 데 자 듯 꼬 와 서 죽 엄 울
가 져 다 무 덤 에 장 사 하 니 라 열 두 데 자 모 여 예 수 의 게 나 아 가 다 횡 훈 배 와 가
라 친 바 로 써 꼬 하 니 예 수 같 오 샤 다 녀 희 그 육 기 들 에 가 잠 시 수 이 라 하 문 나
왕 하 노 쟈 만 아 밥 먹 온 틈 이 업 수 미 라 이 여 비 룰 타 꼬 그 육 기 들 에 가 논 더 못
사 름 이 그 가 물 보 꼬 아 는 쟈 만 아 모 단 꼬 을 노 조 차 함 씌 보 횡 으 로 거 괴 말 아
가 만 져 널 이 리 더 라 예 수 나 각 허 다 훈 사 름 을 보 미 어 엽 비 비 기 문 양 이 목 인

업삼갓타미라엘어가지로썩가라치니썩이무느즌지라데자나아와갈아
되여괴는들인데썩가느젓», 이다 청전된뭇사룸올해쳐두루촌니에가자
괴를위하여먹을거슬사게호소셔하니더답하샤더너희가꽁급하라갈아
되우리가온이십냥에치썩울사다메길잇가갈아샤더너희썩멘기나잇는
가보라하니알고갈아되다삿기오꼬기두기니이다이여데자룰명호여못
사룸울페령풀우에벌너안지우라하민^한안지우니혹일박후쉬인이라예수
썩다삿파고기두기룰가지고하날울우리려축슈하고썩울데여데자게부
턱^한여곰뭇사룸의암페놋고고기두기로썩모난사룸의개논으니다먹고
빈부른지라또그눅은부슬어기룰거두어열두광지에치왓는디그썩먹은
쟈는오천이터라이여데자룰위거비에올나만져텨전두년에건너벗식되
에가라하고자괴는뭇사룸울혜치드니뭇사룸울작별후에산에가빌^한하
더라져^한울기여빈눈바다에잇고자괴^한험즈^한못^한서^한데^한반률저어달년^한하물보
니바^한람이거스눈연고라밤이사경에바다오로^한힝^한하여지니가고져^한훔갓타
니데^한자그바다에횡^한흐물보고썩피물이라하여불우문다보고두려우물인

하미라예수꽃말하여갈아샤더마암노아라니로다무서워말나하꼬이여
나아가비에올이니바람이즉시멎는지라못사룸이마암에혼나썩啼데던일
올씨닷지놋호문그마암이완피호미라건네비여깃느사릿싸에널이리두던
에민꼬비^포루^포써느니사룸이즉시알꼬사방에말아나상으로세병인울머이
고그잇는바루^포듯고나아오터라^포무론예수들에가시는바혹마을파혹성시
파혹촌에서사룸이병인울당^포에두꼬다놋그옷단만지기률구호나만자
는쟈는다나으물엇더라

말콧목음례칠장

바리신인파멘션비예루살임으로붓터오^고쟈모여나아와고^고데자수인아
터러운것곳짓지^오은손으로썩먹으^고울보니^고더기바리신인파유^우뒤^고못사룸
은장노의^고두텁^고한물직^고기여손울정이^고식지^인코^고눈먹^고지^온이^고호^고도^고당^나로
부터도라와^고식지^온코^고눈먹^고지^온이^고호^고도^고열^고어^고웃^고바다^고직^고기^고나^고잔^고파^고가^고미
와^고놋^고괴^고명^고울^고식^고츠^고미^고라^고로^고바^고리^고신^고인^고파^고션^고비^고물^고이^되엇^고지^너의^고데^고자^고는^고장^나로
으^고두^고년^고한^고물^고험^고치^온코^고도^고리^고여^고더^고리^고운^고손^{으로}썩^고썩^고울^고먹^느뇨^고하^니뒤^고맙^하샤

더션호지라이사야밀이너희거죽션하노쟈를갈아치미여고록호바갓치
이빅성이입수로써나를돕피나그마암인즉너게마다오직사람의봉호무
로써가라치노도룰삼으니이공연이너게절하노지라하여스니너희눈하
나님에경계를썩느고사랑의뉴턴호물직킨다하꼬도갈아샤더실노너희
가하나님의경계를버리꼬너희뉴턴호물직끼니모쇼갈아되너희부모를
공경호라하고도갈아되부모를공돈하노샤눈반다시죽게훈다하되오직
너희눈갈오되만약사람이부모의게일오되너게로부터유익흘거슬슬반
울삼았다하니신긴즉례물이라눈뜻이라후에너희그부모봉양을허치온
이하니이너희붓чин바뉴턴으로써하나님의도를폐하고도만이이갓타물
힝흐느니라이여못사람을불녀갈오샤더너희다나를듯꼬씨다라하라밧
그로말무암아들어가는거시사람을터리이지못하되오직안으로말
무암아나오는거시사람을터리이느니라하터라예수못사람을써나집에
들어가미데자이비사를물을은뒤갈아샤더너희도이갓치씨앗지못하느니
밧그로말무암아사물의게들어가는거시능히사람을터리이지못하기는

그마암에 들지^온코^거 그빈에 들어 측간에 셀어 어자니^니 그 먹는 바정^호 물령
빅지^못하^느 뉴^션 갈아샤^더 사람의 속으로 말무암^나 나오는 거시^사 름^온 더
려^이 가는 안^{으로} 말무암^아 사^큼 이 마암^의로 나는 악^한 성^각 이 외^입 파^도 적
질파^살 이^파 음^노 파^탐 남^파 악^횡 파^쇠 우^리 질파^샤 치^홈 파^질 투^파 휘^방 파^교
만^파 자^궁 이^니 이 모단^악 이^다 인^{으로} 나^사 름^온 더^리 이^느 나라^호 더^라 이^여
널^여 거^고 로^투 루^와 시^돈 경^느 에^가 흔^집에^돌 어^가 즐^거 사^룸 이^로 알^지 못^하
게^하 나^줄 어^나 감^초 지^못 하^더 라^한 흔^느 인^이 얼^린 쌀^이 더^리 운^귀 신^온 쌀^의 게^쫓 기^률 구^하 니^이 뼈^인
지^라 소^문 온^듯 고^와 그^발 암^에 엎^더 여^귀 신^온 쌀^의 게^쫓 기^률 구^하 니^이 뼈^인
은^힐 리^느 사^룸 인^테 수^로 보^니 지^빅 쟁^이 라^예 수^갈 아^샤 더^아 히^틀 온^만 족^비
부^르 게^하 고^아 히^틀 이^썩 올^가 족^세 기^게 터^지 미^올 치^못 하^니 라^티 인^이 디^답
하^히 연^갈 아^도 주^아 쿨^어 하^니 이^다 기^도 상^알 에^서 아^히 틀^에 부^수 려^기 를^먹 누^니
이^다 흐^느 니^이 연^갈 아^샤 더^이 흐^말 올^인 하^느 억^비 도^라 가^라 귀^신 이^이 무^느 왓^는 지^라 예^느
수^투 로^에 지^경 온^나 와^시 돈^온 지^느 영^가 니^느 바^다 에^내 릴^이 디^자 포^리 이^디

경절반이라 귀^여고 반벙어리 된 쟈^{제제}이 고와 손을 그 우에 안찰^호기^기를 구
하니 예수 달이 고뭇사 름을^나 유벽^한곳에 널^이로 손가락으로 쟈 그 귀에
수시고 춤바다 그 헤^를 만지고 하늘^을 우러^려 탄식^하 여 갈아 쟈 터^입 파다^라
하니 신긴 족^영 그^라 눈빛^{이라} 그 귀가 곳^에 있고 혜^가 풀리^져 말^을 발^키 하니
이^여 경계^하 여사 름^의 게^고 치^말 나^하 나^들 어^나 더^욱 경계^하 되^더 육^더 련^하
더^라 뭇사 름^도 경^동 물^이 고^지 못^하 여^갈 아^되 그^하 는^거 시^다 션^한 거^시 귀
먹^당 이^로 두^게 하^여 벙^어 리^로 멀^하 게^한 다^하 더^라

말^꽃 복^음 레^팔 장[▶]

말^꽃 장[▶] 여^자 사 름^이 다시 함^씨 잇^는 더[▶] 월^거 시^업 소[▶] 예^수 테^자 름^풀 고^일
오^샤 디^니 이^못 사 름^을 어^엽 비^비 기^는 거^시 이^무 나^를 함^씨 흔^지 사^흘 레^에 먹^을
바^업 소[▶] 나^만 약^주 우^려 집^에 둘^아 가^게 하^면 릴^에 쟈^곤 편^하 리^라 하^고 온^쟈 가^하
혹^먼 곳^{으로} 쫓^차 미^라 톤^자 디^엽 호^되 어^디 로^말 무^암 아^썩 울^어 터^썩 들^에 쟈^서
비^부 르^제 하^고 리^요 하^고 물^오 샤^디 노^희 게^썩 멧^기 나^잇], 또^갈 오^더 그^린 굽^기 로[▶]
소^이 다^어 뭇^사 름^을 명^하 여^싹 에^안 치^우 고^이 썬^노 름^을 가^져 축^슈 하^고 톤[▶]

여데자게부쳐노으라호미못사롬암페노으니
 쇠두어기져근고기잇는지
 라소축슈하고명하여노으니못사룸이먹고비부른지라남은부수리기날
 굽팡지를거두고먹은쟈는사첨인가랑온즉시허치더라이여데자로터부
 러비에올나달마누다경니에날으니바리신인이나와하날노부터장죠를
 구흐물물어썩시험하니마암에심히탄식하여갈오샤뒤이세디가엇지징
 죄률구하니뇨너실노너희게일오니징죠를이세디에보이지온것다하
 고썩나다시비에올나티전두던에가더니데자썩울닛고비에썩흔기셨이
 라예수경제하여갈오샤뒤삼가바리신인의누룩파혜롯의누룩울방비하
 라하니데자서로이론하여갈아되우리썩업스미라호거눌예수알고갈아
 샤뒤너희엇지썩업스물서로이론하니너희오하려면빅지못하고썩
 닷지못하니너희마암이완피하니너희눈이아서보지못하며귀가이서
 듯지못하고도괴록지못하니너니가썩다삿리를오천인의게데고부수럿
 기를거두워너희멧광지에치와니갈아되열두흘이니이다도썩날굽기
 로사천인의게데고부수럿기를거두워멧함지에치와니갈아되늘굽이

니이다 갈아샤더글언즉 너희 엉지씨 닷지 못하.」. 냐하. 더라 빙시다에 널으
니 소경 올다리고와 그만지 물구하. 니 예수 소경의 손을 잡고다리고 촌방게
나가 그 눈에 춤방꼬손으로 썩 안찰하. 꼬보으는 바잇.」. 냐물으니 텔을 어려
보고 갈오되 니사룸을 보니 보기 예남우갓치 힝하.」. 이다하. 미다시 손을 그
눈에 안찰하. 고자세이 보라하. 니 소목하. 여발키모단물건을 보는지라 보니
여집으로 돌아가라하. 며갈아샤더촌에 들지 말나하. 더라 예수 텔자로 더부
러기사랴비리비모단촌에 나가다가 길에서 텔자게 물어갈아샤더사룸이
나를 뒤라 말하. 다냐하. 니더답하. 여갈아 되밥팀례를 베푸던요 안느라하. 며
혹이니 야라하. 며혹션지의 흔.」. 이라하. 다아도 물오샤더오직 너희는 나
를 뒤라하.」. 냐피들이 디땀하. 여갈아 되쥬는 기리 쓰토니 이다하. 니이여 경
계하. 여사룸의 게꼬치 말.」. 하. 더라. 비르소가라 쳐인조만이 꾸상하. 여양노
와제사장파션비의 버린바도 여주기 물보왓다가 삼일후에 다시 날갓다하.
더라 예수발기이 룰말하.」. 냐피들이 릇들여 비르소간하. 거늘. 이여 텔자로 돌
아보꼬피들을 치망하. 여갈우샤더사탄아니 뒤로 물나가라. 노하나님의

이^이온^온모^모밧^밧지^지온^온코^코이^이사^사룸^룸이^이일^일한^한다^다하^하더^더라^라이^이여^여못^못사^사룸^룸파^파데^데자^자를^를물^물비^비류^류
샤^샤더^더나^나클^클좆^좆꼬^꼬져^져호^호는^는챠^챠면^면몸^몸을^을이^이고^고여^여십^십진^진틀^틀을^을지^지꼬^꼬나^나클^클좆^좆추^추라^라호^호문^문그^그
성^성명^명온^온구^구완^완고^고져^져호^호는^는챠^챠장^장차^차망^망하^하고^고오^오직^직나^나파^파밋^밋복^복음^음온^온위^위호^호예^예그^그성^성명^명
온^온망^망호^호쟈^쟈는^는쟝^쟝차^차구^구완^완호^호미^미라^라만^만약^약사^사룸^룸이^이오^온은^은세^세상^상온^온엇^엇꼬^꼬그^그성^성명^명온^온힐^힐으
면^면무^무삼^삼유^유익^익이^이이^이스^스리^리요^요사^사룸^룸이^이무^무어^어스^스로^로썩^썩그^그성^성명^명온^온밧^밧구^구랴^랴무^무론^론이^이간^간악^악
호^호흔^흔세^세되^되에^에서^서나^나파^파뉘^뉘도^도로^로썩^썩붓^붓그^그러^러우^우물^물삼^삼눈^눈쟈^쟈눈^눈인^인즈^즈아^아밤^밤의^의영^영화^화로^로썩^썩면^면
사^사파^파함^함썩^썩넘^넘흘^흘썩^썩에^에또^또호^호이^이사^사룸^룸으로^로썩^썩붓^붓그^그러^러우^우물^물삼^삼이^이리^리라^라하^하더^더라

말^말꽃^꽃복^복음^음례^례구^구장^장

도^도갈^갈아^아샤^샤더^더니^니실^실노^노너^너희^희게^게일^일오^온느^느니^니여^여괴^괴션^션쟈^쟈죽^죽기^기전^전에^에쟝^쟝차^차하^하나^나님^님이^이나^나
라^라이^이능^능간^간으로^로오^오물^물보^보리^리라^라하^하더^더라^라옛^옛신^신룰^룰지^지느^느예^예수^수피^피들^들파^파야^야곱^곱파^파요^요안^안
느^느나^나루^루다^다리^리꼬^꼬그^그윽^윽기^기놉^놉푼^푼산^산에^에올^올나^나그^그암^암페^페셔^셔변^변화^화호^호느^느더^더그^그웃^웃시^시빛^빛나^나희^희여^여
셰^셰샹^샹에^에희^희게^게호^호는^는쟈^쟈도^도능^능히^히이^이갓^갓치^치희^희게^게못^못하^하갓^갓꼬^꼬돛^돛이^이나^나파^파모^모쇼^쇼가^가나^나타^타
나^나예^예수^수로^로터^터부^부러^러말^말호^호니^니피^피들^들이^이예^예수^수게^게일^일느^느갈^갈아^아되^되션^션싱^싱님^님우^우리^리여^여괴^괴이^이스^스
미^미죠^죠흐^흐니^니우^우리^리막^막서^서히^히를^를서^서위^위한^한나^나은^은션^션싱^싱님^님을^을위^위호^호고^고흐^흐나^나은^은모^모쇼^쇼를^를위^위호^호

묘호나온이니아를위호갓느이다호니글어나스사로일은바를아지못호
문데자두려우미심호미라구름이같이우꼬구름으로부터소리이서갈아
샤더이논니의사랑호는아달이니너희들으라호더라데자문득둘보니
한사름도보아지온코오직예수파가괴呻이델더라산에니릴석에예수경
계호시되인조죽으로다시난전에몬바로썩사룸의게고치말나호니데
자이말을간직호여함석의론호되죽으로다시닐갓다문무삼뜻인가호
고쓰무리갈아되션비의말이이니아가맛당히만져오리라호다이다호니
갈아샤더이니아가자연만져와모단일울회복제호리라호고성경에말이
인조각만이고상호여업수이비기는바되리라호문엇지냐니실노너희계
일오느니이니아가이무와소미사름이도암의로된첩호여느니꿋고록호
바갓타니라호꼬데자이개념으로허다호사름이둘우꼬쓰션비가판론호
물보니못사름이예수를보고황송호여암페나아와문안호디예수물우되
너희판론호는제수무이시냐호니못사름중에호나이디덟호되션성님니
가벙어리귀신부튼아달을말이꼬션성님의게나아오기는데언니꿋이됨

지침노호면속사너머지개하여춤을한니며나를갈고말으기로선현님의
대자개쓰거리를구호되며능치못한터이다호니되답하여갈아샤되밋으미
업눈세뒤야너너희를함께호는지가멧썩여너너희를참는지가멧썩나다
리고너게나아오라호미데다리고나아온이예수를보고귀신이즉시지를
케호여싸에업을우져구을며춤을흘리거늘그아밤게물으샤디트이병호
눈지가멧썩나갈아되얼여셔부터열어번불파물에더져망호리호오니쥬
만약능호시면어엽비비겨우리를도으소서호니예수갈아샤디비만약능
호면잇는쟈의개눈등치온이미업니니라아^국아비즉시불녀^국갈아되니밋
으나뉘밋음이도탑지못호물도으소서호니예수열어사룸이달아와모이
울보고터런운귀신을세지저갈아샤되귀먹꼬벙어리귀신아니비게명호
느니터로말무암아나오고다시들어가지말나호미이여불으고크게지랄
게호고나오니아히죽은것갓탄지라사름^국이만이죽었다일이되다못예수
그손올잡아넓으치니이여넓어나는지라집^국에들어가미데자사사로히물
으되우리는능히쓰지못호니잇가갈아샤^국디이런뉴는비는것은인즉나

오지온느니라호더라거괴로말무암아가니느를지느는디즐거사람으로
아지못호게호고데자게가라쳐갈아샤디인즈가사람의손에붓치워줘길
지니주긴지삼일후에다시날갓다호되데자이말울기닷지못호나도못기
풀두려워호터라가벌남에날으려집에셔데자게물우되너희길에셔서로
의론호거슨무어시냐데자잠잠호문길에셔뉘가크냐의론호미라이여안
저열두데자풀너갈아샤디슈두가되고져호는쟈반다시못사람에마즈
막이되며못사람에사환이되느니라호고얼인아히룰취호여그가온디두
고도운고데자게갈오샤디무론느일홈울위호여이런얼인아히호나룰디
접호는쟈는곳나룰디접호미오나룰디접호미언이
오오직나룰보보님이룰디접호미라호더라요안느갈아되션성님우리호사
름쥬의일홈으로썩귀신쫓추물보와눈고로금호연스문그우리룰좆지온
으미니이다예수갈아샤디금치말나느일홈으로썩능호물힝호고나룰경
희공론호는쟈업느미니라무론우리룰치지온는쟈는우리를향호미라너
히가기리쓰토게붓트물인호여호잔물노썩너희룰마시개호는쟈노뉘실

노 너희게 일오니니 그 양차 그 양주 물 헐치온으리라. 무론 나를 믿는 얼이 아
히에 혼나를 것 치게 하 눈자는 찰아리 큰 망돌 노썩 목에 미끄바다에 터지라
만약 베손이 너를 것 치게 하면 썩어 병신으로 영성에 들지니 두 손으로 지옥
새치지온는 불에 나아가기 보 담나으니라. 만약 베발이 너를 것 치게 하면 썩
어 절눅 발이로 영성에 들지니 두 발 노지 옥에 터지기 보 담나으며 만약 베눈
이 너를 것 치게 하면 뚱괴 쳐 혼둔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니 두 눈으로 시
옥에 터지기 보 담나으니라. 거괴 눈벌기가 죽지 온는 뜻이
라 무론 사람은 반드시 불노 썩이니. 나라 소공은 죠 혼거시나 다 못 소공이
그 맛슬 힐으면 엇지 썩싸게 하랴 너희 속에 소공이 이스니 서로 화목하라.
터라

말곳복음테십장

예수 거리를 썬 나을 단 밧개 유디지경에 널으니 열어 사람이다 사모여나아
오거 날천파갓 치가라 치니 바리신인이 와 물으되 사람이 쳐를 터치 미합당
흐뇨. 여시 험하니 더 닙하 여갈아샤 더 모쇼가 너희게 명호 거시 엉터하뇨

갈아되모 쇼가 각 냄문세를 써 주고 닌 치라하엿느. 이다 예수 갈아샤더니 히
마 암완 페호 물인하 여이 명울너 희게 써시나다. 옷조화의 처음에 하나님 일
남일녀를 지어스니. 이 룰인하 고민사 룸이 부모를 써나서는 그 쳐파년년하
여 둘이 일테가 되느. 니이 갓타면 둘이 되지온 코일테 라고로 하나님이 짹호
바를사 룸이 논으지 봇하느. 니라호 더라 집에서 테자 다시 일노 써물으니 갈
아샤더그 쳐를 버리고 달니 취하. 눈자는 눈음은 온 흥하 미오 만약 쳐가 그것 아
비를 버리고 쳐시집가는 자면도 흔음은 온 흥하 미니라호 더라 미참얼인
아히를 다리고 예수의 게와 그 만지 룰구 훈디데 자착망하니 예수 보고 유감
흐여 갈아샤더아히를 용남하 여니 게나아오게하. 꼬금 치말나하나님이나
라이 쇼호이 갓타니 라니 실노너 희게 일오느. 니얼인아히파 갓치하나님의
나라를 밟지오. 눈자는 시립곰들어 가지 봇하느. 니라호 꼬이여온 꼬손을 그
우에 뒤이 꼬축슈호 더라 길에 나가는 디한사 룸이 암페나아와 쿠어안서 물
으되 션한부 주야. 뉴무어술하 래써 영성을 어들이요하니 예수 갈아샤더 엇
지나를 션 탄 칭하느. 냐션호자는 오직 흔물이니 꽃하나님이라. 대모단경계

에 살인 말며 음논 말며 도적질 말며 망령된 간증 말며 쇠기지 말며 너희부모
를 공경하라 물알지니라 하니 갈아되부스야 무론이 거손느 얼여서 부터 직
기였느이다 예수보꼬 사랑하여 갈아샤더네 오히령호나이이 즐어 저스니
가셔잇는 바를파라서 가노흔쟈를건지라 양차보비 가하날에잇느니도와
서나를조추라하니데 이말을위하여 낫치변하 고근심하 고가문 그 산업이
만으미라 예수둘더보꼬데자게갈아샤더진물잇는쟈하나님의나라에들
어가기가얼여운지라하니데자그말을이상이 키기거눌예수다시당혹하
여갈아샤더아히트아진 물올의지하노쟈하나님의나라에나아가기가얼
여운지라 약더가바늘구렁에지니 가기가부쟈하나님의나라에들이가는
것보 담오 하려쉽다하니데자심히이상이 베며 갈아되글연즉뉘하구완
흐리요하니 예수둘아보꼬갈아샤더사름의게는 등치못호바업스 미라하 더라피들이갈아되우리일
의게는글어치운으문등치못호바업스 미라하 더라피들이갈아되우리일
절울써나주를조창느 이다하니 예수갈아샤더너실노너희게일오느니나
파복음온위하 여집파동성파 누이파부모파자식파련법을써나마업는쟈

는 금세에 박비를 뜯지 못하는 거시집파 동식파 누이파 어 맘파 자식파
파도호군박 호나 닌세에 영성호 리니라 클어 나 만져잇는 자만이 뒤가 되고
뒤에잇는 자만이 만져가 되니. 나라호더라 예루살임에 가시는 길에서 예
수만져 힝하시니 데자이상이 비기고 쫓는 자 무려 위호거 날이 염 다시 열두
데자를 다리고 자고 양차만 날바일 노썩 말하시되 우리 예루살임에 간즉인
자가 봇치물제사 양파션비의 계보리니 그 주기무로 써정호 여외방사람의
게 봇쳐 능욕하며 춤바드며 칫직질하며 쥐길지니 삼일후에 다시 날갓다호
터라시비더의 아달야 꿈파요 안니나 아와 갈아되 션싱님우리 즐겨 무어 슬
구하던지 우리 게 힝하소서 호니 갈아샤 되나 다령무어 슬너희 게 힝코 죄하
느냐 갈아되 쥬영화호 셔에 우리 호나은 주의 우편에 온 꾼호나은 자편에 온
게 하소서 예 수갈아샤 되너희 구하는 바노너희 아지 못하는지 라니의 마시
눈잔을 능히 마시며 니의 빙눈밥팀례를 능히 빙갓느냐 하니 갈아되 능히 하
갓느냐 이다예 수갈아샤 되니의 마시 눈잔을 너희 마시며 니의 빙눈밥팀례를
너희 바드되다 못느니의 자우에 안세는 니가 주지 은코 오직 예비호자 를 위호

느니라하나열기데자듯꼬즉서야끔파요안너를유감하니예수물너갈아
샤더너희외방에남군된쟈가쥬하꼬더신이그권세를잡는줄알아되오직
너희노글엇치온은거시너희중에크미되고져하는쟈^{四十四}노장차너희사환이
되고슈두되고쟈하는쟈는장차못사름의종이되문인^{四十五}즈가참와셔사름의
섬기물밭지온코썩사로울섬기미오도그성명을손흐여뭇사름을위하여
속하미라하더라예리호에널으려데자파열어사름으로함썩나갈썩에티
민의아달발티민는소경누결이라궐역에션것다가나살^{四十六}있예수를듯꼬
불더갈아되다빗의후에예수는나를어엽비네기소서하미열어사름이최
망하여잠잠하라하되더크게불더갈아되다빗의후에는나를어엽비네
기소서^{四十七}하니예수^{四十八}서갈아샤더부루라하미이여소경을불더갈아되네마
암울놋코닐어나란데니를불운다하니이여옷슬버리꼬닐어나예수의게
나아가니예수일^{四十九}갈아샤되나다려무어슬비게하고져하니.냐소경이갈
아더부즈야나를보게하소서예수갈아샤더가라너의밋으미더를낫게흔
다하니이여보울엇꼬걸에서죽더라

말곳복음데십일장

예루살임에 갓 가온 벳파게와 빠다니에 날으니 감남산 암에 라두데 자를 보
느며 말하되 너희 암촌에 가더러 가는데 져근나 귀민 거슬 만니리니 사람이
종니 타봄이 업스니라 풀어잇글꼬 올네 만약 사람이 너희 엉지하여 이룰하
느냐 물으면 갈아되쥬의 쓸거시라 호 라마 즉시 보너리 라이 여가파연 져근
나 귀를 만니나 문 밧 큰 길에 미엿는지 라이 여풀우니 젯 티 셋든 쟈 갈아되나
귀를 풀어 무었 훌나느냐 하거 날데자 예수의 명호 바갓 치 말하니 허호는지
라이 여져근나 귀를 잇클고 예수의 게나 아와자 괴 옷을 그 우에 두고 예수 타
니 열여사람이 옷파혹 나무 각지 둘 밧 테셔 버여 날에 펴고 또 암페 힝하며 뒤
에 쪽는쟈 물이 되 호산나 주의 일홈을 부탁하 여온쟈는 목이 오우리 조상다
벳의 나라 이 님한쟈복이 오지극히 놈 푼곳에는 호산나라호 터라 예수 예루
살임 성론에 더러 가모 단물건 올둘니 보고 져 물리에 열두데자로 함쁘 빛아
냐에 나가더라 이튼 날빛아냐에 나갈 씨에 예수 빙 꿈 푼지 라 멀니 셔 나무 님
잇는 화파 남우를 보고 나아가 혹 그 우에 무어 술어들 가하 여나 아간 즉 오직

님분이 오어들 바업스 문파 실세 날이 지못하 미라 알더 갈아샤 되이 제 써 후
로 긴 니너 위열음 먹을 사름이 업스 라하니 데자 들었는 자라 예^{十五} 루 살임에 날
으리 예수 성년에 들어 가 그중에 당사호는 자를 솟추며 돈 밧구는 자의 탁자
파비들기 파는 자의 이즈^{十九} 를 석구 러치며 또 자분 거슬 가지고 련안에 지니 가
물허 치운 코가 라쳐 갈아샤 되글에 니 집은 모단 빅성^{二十一} 윤위^{二十二} 여비^{二十三} 는 집이라
쓰지운 앗느^{二十一} 냐 오직 너희 가 셋 강도의 소혈^{二十二} 올삼우 미라 션빈^{二十三} 파제^{二十四} 사장^{二十五} 이
롤듯고 엇지 써 망호^{二十六} 고도 모호^{二十七} 나무서워^{二十八} 문뭇^{二十九} 사름이 그 가라치 물괴^{三十} 히
비기더라^{三十一} 쟈물^{三十二} 기여^{三十三} 미양^{三十四} 성에^{三十五} 나가야^{三十六} 층에^{三十七} 지니^{三十八} 던^{三十九} 씨에^{四十} 무화^{四十一} 파나^{四十二} 우를 보소^{四十三} 셔말^{四十四} 낫느^{四十五} 이다^{四十六} 예수^{四十七} 디^{四十八} 답^{四十九} 흐여^{五十} 갈아샤 되너희^{五十一} 하나님^{五十二} 을^{五十三} 믿으
라^{五十四} 니실^{五十五} 노너^{五十六} 희게^{五十七} 일오느^{五十八} 니무론^{五十九} 이산^{六十} 파 말^{六十一} 흐여^{六十二} 갈아 되^{六十三} 움가^{六十四} 바다^{六十五} 게^{六十六} 더^{六十七} 지라
하되^{六十八} 마암^{六十九} 에^{七十} 의심^{七十一} 치운 코^{七十二} 오직^{七十三} 말^{七十四} 흐바^{七十五} 일^{七十六} 율^{七十七} 줄^{七十八} 믿는 자^{七十九} 눈^{八十} 엉느^{八十一} 니라^{八十二} 괴로^{八十三} 니니
희^{八十四} 게^{八十五} 말^{八十六} 하느^{八十七} 니무론^{八十八} 비리^{八十九} 구하는 바^{九十} 어드^{九十一} 물^{九十二} 빛^{九十三} 은즉^{九十四} 엉느^{九十五} 니라^{九十六} 노너^{九十七} 서^{九十八} 빌^{九十九} 셔에
만약^{一百} 사^{一百一} 름^{一百二} 이^{一百三} 틀^{一百四} 니^{一百五} 미^{一百六} 이^{一百七} 스^{一百八} 면^{一百九} 샤^{一百十} 하^{一百十一} 여^{一百十二} 니^{一百十三} 희^{一百四} 아^{一百五} 밤^{一百六} 하^{一百七} 날^{一百八} 에^{一百九} 계^{一百十} 신^{一百十一} 이^{一百十二} 가^{一百十三} 도^{一百四} 흐^{一百五} 니^{一百六} 희^{一百七} 허

물을 샤게 하리라 하더라 예수 다시 예루살암에 놀이리 성전에 향홀석에
사장파션비파 양노나 아와 갈아 되 무순권세로 써이를 헝하며 뉘가 이 를
향하는 권세로 써너를 주더 냐하니 예수 갈아 샤더니 죠호니 히게 흐 말온 물
을 거스니 너희 가나를 디 담호죽니 무순권세로 써이를 헝하 물니 히게 괴하
리니요 안니 밥팀례 가하 날노 말무 엿느냐 사름으로 말무 엿느냐 나를 디 담
하라하니 사사로히의 론하여 갈아 되 만약 하 날노 말무 엿다 말하면 데갈야
되 글어면 엇지 및지 은느냐 하교 만약 사름으로 말무 엿다 말하면 빅성이 무
서 우문다요 안니로 써실노션지를 삼으미 라이 여디 담하 여갈아 되 아저 뜻
하노라하니 예수 갈아 샤더니 죠호니 히게 무순권세로 써이를 헝하 물고 치
안 것이다 하더라

말곳복음예십이장

예수비사로 써뭇사름게 말하 되사름이 포도원 올심우고 바주로 써둘우고
술틀옹거리를 파고 토둔을 셔워 농인의 게세주고 딸은 싸에 갓다가 괴약에
밋처 흐종을 보니 여농인의 게나 아가포도원에 올림을 밟고 져습니다 못농

인이 잡아티고 꽁연히 돌아가게 헤마다 시달은 종을 보니 나 봉인에 그 말에
를 상하고 능욕하나 죄로 종을 보니 나 봉인이 주기 눈지라 죄로 종열어 를
보니 혹 치며 혹 주기 눈지라 사로 훈나 이이스니 끗사랑하 눈아 달이라 마
즈막에 죄로 훈보니 며 일오되 토니 아 달을 꽁경하 리라 헤니 다못 봉인이 사
로 말하 되이 눈장손이니 주기 면 산업이 우리 히라 헤고 이여 잡아 주 계동산
밧제 버리니 원주 장차 엇지 헤리요 와 셔이 봉인 올망고 동산 올달은 사룸
의 게 봇치리라 너희이 괴록일은 바 양인 이 버린 바돌노 집모통이 요 긴 훈돌
올삼아 스니 이 눈주이 얼운 바라 니 눈에 괴묘하 물삼는 다후 물오이 지못하
엿느냐하니 그 사룸덜이 이 비사가 자괴 를 갈아 치는 줄 알고 잡고 저하되다
못뭇사룸을 무서워하 여 썬나 가더라 바리시인 파혜롯의 뿌리 수인 올보니
여 그 말노 써 그 물코 져하 여나 아와 갈아 되션 심님은 참된 이요 사룸을 편디
치안 눈줄을 우리 알문 외모로 써 사룸을 취치 인코 참으로 써 하나 님의 도연
하 미니 이다 기 살의 게 셰를 밟치 미 합당하니 잇가 우리 눈 밟치리 잇가 밟치
지 안으리잇가 하니 그 거죽술을 으시고 갈아 샤드 엇지 나를 시험하느냐 돈

흔금을 가져다 나를 보이라 이여 가져오니 갈아 샤드이 화상파고 호가 뉘냐
갈아 되기 살이 니이다 예수 갈아 샤드이 물건은 기살의 게돌니고 하나
님의 물건을 하나 님의 게돌니라 하니 그사람이 심히 고지히 베기더라 또 샷
두리인의 말이 다시니는 샤업다호여나 아와 물어 갈아 되션 신님모 쇼가 우
리게 써스되 만 약사 룸아 죽으미 쳐는 잇고 자식 올뉴치 못하고 면동성이 그 쳐
룰취하 여자식 올나아네 준다호고 형데 날굼이 잇는디 맛샤가 쳐를 취하 여
자식 올뉴치 못하고 죽으미 그 둘 치가 취하 여도 흐자식 올뉴치 못하고 죽고
그 세 친가도 흐클어하 여 날굼사 룸이다 자식 올뉴치 못하고 그 후에 벼인이
도 흐죽엇는다 다시 날Samsung에 물이 러티뉘의 쳐가 되리잇가호 문날굼사 룸이
다취하 미라 예수 갈아 샤드이 희성경파 및 하나 님의 능호 물아 치못하니 이
틀니 지온으랴 죽으무로 다시 날Samsung에는 장기도 온이 가고 시집도 온이 가고
하늘에 있는 사자파갓타니라 죽은 샤 다시 날지된 너희 모 쇼의 글형극 편에
하나 님의 이렀듯 말하 여 갈아 샤드이 암라 함의 하나 님의 삭의 하나 님 야
곱의 하나 님의 래호 물오이 지못하니 냐 뒤기 하나 님은 죽은 샤의 하나 님

이 안에 오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로마희가 심히를 낸지라. 더 라한 선비와
서 그 변론 후 물듯고 예수의 뒤답이션 후 물알고 이여 물이 되 모단 경계 중에
어느 거시 웃듬이 되느니 이잇가 예수 뒤답하시 되 웃듬은 이 살월 아달이라 쥬
가 우리 하나님이 오주는 한분이라. 드니 희마 암을 다. 면련 생을 다. 며 뜻
올 다. 하며 힘을 다. 하여 너희 쥬하나님을 사랑하라. 훈거시 오그 둘진 눈 균쳐
사랑하 기를 제 몸 갖치하라. 하여 소니 경계가 이에 콘 거시 업느니. 라. 하. 니
션 비 갈아 되션 훈지라. 션 성님의 죠 탄 말 삼이 라하나님은 오직 합분이 오 그
외에 눈 말니 업스니 이다. 마암을 다. 하며 뜻을 다. 하며 힘을 다. 하여 사랑하. 괴
스로 근쳐 사랑하 기를 제 몸 갖치 훈즉 모단 불살 음파. 제사 흉보 담나 으리다. 하
니 예수 그 뒤답이 총명 후 물보고 갈아 샤드비하나님의 나라에 머지 안았다.
하니 일노 봇터 감히 뭇는 자 업더라. 예수 성면에서 가라 칠색에 갈아 샤드 업
지 션 비가 기리 쓰토를 다 빚이 후 예라 말하느니. 다 빚이 성령의 게 감동하. 여
스사로 말하니 쥬니의 쥬게 일오샤디네니의 우편에 안 저니 가네의 원슈를
가져 반등 삼기 를 기다리라. 하여 소니 다 빚이 스사로 쥬라 칭하. 여신 즉 업지

그후예가되랴하니뭇빅성이깃거듯더라가라칠썩에갈아샤드션비를방
비호타더노긴옷님꼬힝흐기와당니에서문안파회당에눕풀위와예석에
슈즈코져하나글이나파부의집을삼기고거죽길게비니장차이사로델이
그죄바드미터육중흐리라여수곳간울디흐여안저뭇사룸이돈으로썩고
에더지물보눈뒤열어부쟈는더지미만으되가는호파부와셔돈두푼울터
지니온일나가량이라이여데자룰불더갈아샤드니실노너희게일오느니
이가는호파부끄에더지는바가뭇사룸터지는것보담더만으문뭇사룸은
그남은바에셔더지되오직더는부족한디그잇는바를다더지니끗그사는
거시라하더라

말콧복음데십삼장

성년에나갈씨에호데자일오되션성남청전된이돌이엇더호며이집이엇
더호가보소셔예수갈아샤드비이큰집을보느니양차호나돌을돌우에뉴
흐여물어지지온으미업스리라하더라감남산에안저성년울티호씨에피
들파야곱파요안니파안드랴사사로히물이되청전된우리개어니씨에이

거사이스며도이거지다일을써에무삼징죠이스물일의소서하고예수깔
 아샤디삼가사룸의게미혹호바되지말나쟝차열어사룸이니일홈올무롭
 쓰고와셔갈오디니가기로다호여사룸온틀니게호미만으리라도너희싸
 흠파싸훔호노풍성온듯고경동치말나이거사반다시이스되다못사로마
 즈막온운이라빅성이빅성온치며나라이도호나라를치고열어곳에디진
 허며괴황호나이거슨말년이시초라고로스사로삼가호라사룸이너희를
 공회에붓치며회당에친질호꼬도나를위호여너희룰왕파방빅의암페서
 서썩간증온삼으리니복음온맛당히만져만국에면호라너희룰풀며잡아
 갈썩에엇지썩말호고만져템케치말고그썩에너지룰주눈바를말호라이
 는너희자기로말호미온이오이성령이라동성이동성이동성온가지며아밤이아
 말울가져죽을테붓치며자식이널어부모룰썩죽게호리라너희니일홈올
 위호여미워호풀롯사룸의게보되오직니종것참는쟈는구완울어드리라
 너희거출며미운물건이맛당히셔지못흘썩에션거슬보면오이눈쟈는맛
 당히명빅호리라썩에유되에잇는쟈산으로도망호리나접우에잇는쟈니

려와 집에 들어 가 물건을 취치 말고 밧데잇는 쟈 돌아와 그 옷술 취치 말나 이
썩에 잉튀 혼쟈 파 젓메 기는 쟈 진화라 너희 빌어 겨울만니 물면 호라이 썩에
환란이 하나 님 이 만물을 지은 처음으로 봇터 이제 새지 이 갓타미 업고 후에
도 죽 혼업스리라 만약 주가 그 괴약 올감 치온 아스 면구 완홀자업스 되오직
그 퇴호 빛 쟈를 위호 여 그 괴약 올감 호엿느니라 썩에 만약 너희 게일오 되보
라 키리 쏘이 토가 여괴잇다 혹 그 괴잇다호는 쟈 이스 면밋지 말나 거죽 키리 쓰
토와 거죽 션지가 날어 징죠와 괴괴호 물나 타니 여 만일 능호 즉 쎈 쟈로 호여
꼼호리 게호리니 너희 삼가호 라너다 밀이 너희 게일오 노라 당시에 이모단
환란후에 날이 금음호며 달이 빛나지 못하고 별이 하날노부터 셸어지며 하
날에 쇠모단 능간이 진동할지니 썩에 사룸이 인즈 가 큰 능간파 큰 영화로 썩
구름을 타고 오물보리라 썩에 사자 를 보니 여 그 쎈 쟈 를 사방에 쇠모을 테디
국으로 쫓차년국에 널으리라 무화파 남우로 말무 암아비 사를 보이라 바야
흐로그 가지가 연호고 냅피 풀즉 틀움이 갖가운줄 아느니 이 갓치 너희 이 일
이스 물보고 썩갓가와 문에 멋춘 줄 알나니 실노너희 게일오느니 이 뒤 가지

99
느지못호여이일이다일우리라던다가비록페호여도오직니말은페차안
으리라다못그날그셔룰아는쟈업고하날에잇노사자파아말도쏘호아지
못호되오직아바니만아」니라너희삼가호여씨여벌나너희는그고약이
원제이살줄을아지못호리라사람이그집을서나뜰은닷에거호눈디권세
를종의게맛쳐각각일노썩주고문직기률명호여씨라함갓치호라고로너
희서여라호문집주인이어느셔에불을줄아지못호미라혹초후이며혹진
반이며혹말울녁이며후아적에저푸건된여문특널으리너희삼을만닐가
호노라니티희게말호눈바를도호썩못사람의게말호여씨게호라호더라

말콧복음테십사쟝

이틀온지니니넘는절이도누루금호눈절이라제사쟝파션비궤훌노썩예
수를잡아주기기를도모호되일오도절괴에올치온타호문빅성이분요호
가접페호미터라예수셴다니에빅남풍호눈시몬의집에셔돗게안젓는다
호부인이합에지국기귀호피식날든두고롤담아가지고와셔함을씨치꼬그
멀이에부우니두이사람이노호여갈아되어엇지이길음온허비호느냐이거

슬파라은삼십예량을사시면썩가는을건지갓다호고이에허물호거예날
수갈아샤더용남호라엇지피롭게호. 나그니게죠흔일올힐호는거시라
가는호사름은늘너희로터부러함씨호. 니션아더답호고져호면썩마당가
호되오직나는들너희로함씨못호갓다힐호다호여힐호문밀이너몸에
길음발나썩장사호물예비호미라니실도너희게일오. 나오은세상어너
곳이던지이복음을던호고도호이부인힐호바를말호여썩싱각올삼으라
호더라엘두데자의한나흔이쓰가료유다니제사장의게나아가예수를붓
치고저호미더듯고즐거워호며은주기를하호나이여괴미를차자썩붓치
려호더라누룩금호눈절기첫날은곳넘는절양잡는썩라데자물으되쥬야
우리로어느곳에가예비호여념는절을먹고저호나잇가예수두데자를
보니며갈아샤더너희성에들어가물비온병가진사름을만나리니너회조
차가그들어가는바곳에집주인게고호되션하님의말삼이너데자로터부
교님눈절음식먹을작방이어디잇. 노호라더비설예비호큰다락으로썩
너희게보이리니거고서우리를위호여예비호라데자이여나가성에들어

가파연그말호바갓치만니여념노절임식울예비호니라져물기예열두데
자로함씨널이리안저먹을에예수갈아샤더니실노너희게일오니너
희호나이날노터부려함씨먹는쟈쟝차나를팔나라호니데자근심호여호
나식물오되너내잇가호니갈아샤더열두가운데호나나파갓치바리에호
슈호눈쟈가기로다인조가눈거순글에고록호바갓타되오직인조를판쟈
눈진화이소리나이사름은안이나은거시차라리올으니라먹을에예수
썩울가져축슈호꼬떼여데자루주워갈아샤더빠드라이눈나의신텨라호
고또잔울가져축슈호꼬주워뭇사루울다마시라호며갈아샤더이눈신약
에눈나의피를줄어사루울위호여흘노거시라니실노너희게일오니나
다시는포도남우의나눈즙울마시지못호꼬그눌에식거술하나님의나라
에마시갓다하더라시률입꼬감남산에나가예수데자께갈아샤더너희뭇
시름이나홀새리세우문클에호여호되너가목인울티며양이해여지리라
호미라다못니다시난후에너희암셔가니나에가갓다호니피들이갈아되
비록다새리세울지라도나눈새리세우지온것니이다예수갈아샤더니실

노네게일오느니 오늘이 이 밤달울기 두번전에 비가 세번나 둘둘으리라
들이 힘써 말하되 너 주로 더 부려 함씨 망을 지라도 죽을 우지은 것느이다
하고 각인이 쪼호이 갖치 말하더 라 호곳에 널으니 일홈은 짓세마비라 데자
게 갈아샤 되여 괴안서 너 빌기 룰기 다리라 하고 이여 피들파야 꿈파요 안느
룰디리 고자 괴파 함씨 호여 비르 소황 송호고 조민호여 갈아샤 되느 마암에
심히 근심하니 거의 죽갔다 너 혀 눈에서 기다려 씨여 라 하고 조금나아 까싸
에 업터 여 빌되 만일 능하면 이 썩 룰면 호리라 하고 갈아샤 되느 아바아바
능치 못한 바업스니이 잔울느 계썩 나게 호소 셔다 못느 의뜻으로 한코아바
니의 뜻으로 호갓느 이다하고 이여 와서 데자의 자를 보고 피들게 갈아샤 되느
시몬아비자느 누능히 잠시 룰 씨지 못하느 누망당히 씨여 빌어 씨 미혹에 들
물면 호라마 암온 실노원하나 몸온 연약하다 호고 다시 가비 눈디 말이 죽호
갓치하고 다시 둘아와 데자의 잠울보니 그 눈이 후끈 허여 엇지 딕 담을 줄을
아지못호 거날 데세번 치돌아와 갈아샤 되이제는 자고 쉬이라 다 되였다 씨
널으려스니 인즈 가죄인의 손에 봇치 물보리라 널어 나라 가쟈 나 룰듯 칠자

갓 가 왔다 말 훌 썬에 문득 열두 데자의 흔나 유다 혀 다 흔사 름파 함 썬 칼파 몽
동이로 썬 제사장 파션 비파 장노의 게로 봇터 오터 라 봇 치는 자 일즉 군호를
주워 가로 뒤 낙 입맛 추는 자가 곳 틈니 잡아 굿 건히 살나 하니라 널으리 나아
와 가로 뒤 션 성남 아하 고죽 시입맛 추니 뭇사 름이 하 슈하 빠 잡는지 라 젓 틈
섯 텁자 호나 이 칼 올 썬 여제사장의 종 올 썬 그 귀 름 색 그니 예 수 알니 갈아 샤
되 너희 강도 잡 웅갓 치 칼파 몽동이로 썬 와 나 름 잡느니 날 마당 너희 파함
쓰 쟁년에 썬 가라 첫 눈 달 너희 나 름 잡지 운 코 오직 성경을 응험 게 훈다 하 터
라 데자 다 썬 나 도 망호 눈 달 흔 쟁년이 뵈로 썬 몸에 둘으고 예수 름 족 거 날 군
노 잡으 미 보 를 버서 버리고 도 망하 터 라 이 예 예수 름 제사장 암페슬 으니 제
사장 파장 노파 션 비다 모 엿 눈지 라 피 들이 멀니 종 차 제사장의 원에 들어 가
군노로 함 썬 안 저 불 올 향 하여 죠 이 더 라 제사장 파오은 광회가 간증 올 차자
예수 름 죽이 고져 하 되 엇지 뜻하 문만이 거 중 간증으로 썬 간증호는 바 맛지
온으 미라 또 두 이사 름이 불어 썬 거 중 간증 하여 갈 오 되우 리그 말 올 들으니
이 손으로 지은 바 쟁년 올 허러 니 사흘에 손으로 썬 지은 바 인 거술 썬 우갓

다하여스니 다못 그간증을바로호맛지오눈지라제사장이가온디셔서예
수게물어갈오되네더답호온바업느냐이사롬이간증호여너를치는거시엇
더하냐하되예수잠잠호꼬더답지안으니제사장이다시물어갈오되비가엇
창송하눈하나님의아달끼리쓰토냐예수갈아샤드니가기로다너희작차
인즈가권능의우편에안고또하날에굴움울타고오물보리라하니제사장
이그옷슬쓰즈며갈아되엇지달니간증을쓰리요너희그참남호물들어스
니너희뜻이엇더호냐호민뭇사롬이비거갈오되맛당히주글지라하니두
어사롬이춤밟고그낫출갈이우꼬치며가로되비밀이말하라하고모단군
노손바닥으로치며직기터라피들이알에도원뜰에잇는두제사장의벼종
호나이와셔괴풀이불쏘이물보고눈질호여가로되너도나살잇예수파함
쇠호다호니벼몰으눈체호여가로되나눈베말울엇지하몰아지못호꼬명
빅지못호갓다호꼬이여문산에나아가니달기우눈지라벼종이보고쏘겟
튀션쟈게갈아되벼도그무리에호느이라호니다시몰으눈체하더라이잇
꼬겟튀션쟈피들을게일오되네실노그물이에호나인거시너눈가니느사롬

이라하니 피들이 육하고 끓고 막히는 사롭은 그야지 못한다. 하느라
말기 다시 우는지라 피들이 그 말을 성각하고 나예수 일즉 일은 바칠을 거두번
전에 대세번 나를 몰으리라 헌지라 성각하고 우더라

말곳복음데십오장

아직에 제사장파장 노파션 ^빈파오은 공회가 함석도 모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여슬고 벨나토의 게 ^못치니 벨나토 물으로 배가 유대인의 왕이 나더 밤하고 예
가로 샬더다인이 말하고 옛노이다. 하니 제사장이 열어 굿트로 쟈 송사하고 거날
빌나토 다시 물어 가로티 베 아무디 ^{험도}운노. 누 ^터내 룰치는 거슬보라 열어
굿치로 다하고 다 못예수 아무 말도 더 ^답지 오이 흥니 벨나토 고고히 베기더
라 ^터 가이 절고 마당 뭇 빅성의 구호는 바호최인 올 맛쳐 놋는 뒤 씨에 훈사롭
이 일 هو은 바람바니는 짓는 쟈로터 부러 결연하고는 운치 올 씨에 사롭을 죽
인자라 뭇사름이 올나가 구호여 비더로 헝호 소서하니 벨나토 더 맙하고 여가
로더나 다려 유대인의 왕을 너희게 놋코 쳐하고는 누호문제사장이 스고 허여
붓치려 물알미라 다 못제사장이 뭇사름을 주며 차라리 바람바를 노으라

하나밀나토 다시 뭇사람 게임녀 가로디. 헌법즉 라희엘 이는 밤 유대인 이 왕
은 나 다려 엊지 써 훌나 뭇사람 이 다시 불녀 가로디 십자 툴에 뭇질 하 소서 하
나 벨나토 가로디 엊지 허 미나 무 삼악 올 힝 하 엿느 냐 하 되 뭇사람 이 더 옥
불녀 가로디 십자 툴에 뭇질 하 소서 하 나 밀나토 뭇사람 이 마암디로 힝 하 고
져 하 양 이 여 바람 바를 노와 주고 예수를 칫적 질 하 고 뭇쳐 십자 툴에 뭇질 하
라 하 데 라 군사 쓸고 원에 들어 가니 꾼 공방 이 라 이 여 오은 영을 모이 고 불근
포로 써 낌 페 고 가식 면 드 판 올 양 거스 우고 이 러 문안 하 여 가로디 유디 인의
왕은 편안 하 소서 하 데 가로디 써 그 멀이 룰치 머 촘 뱗 고 죽 끌어 절躬. 여 희릉
올다 하 고 물군포를 뱗 기고 자고 옷스로 써 낌 페 쓸고 나가 써 십자 툴에 뭇질
하 려 하 데 나 구리 니 인시 몬 은 꾼 아리 산디 파로부 이 아밤 이 라 뱗 트로 말무
암하 오 거 말 강이 우. 영 그 침 치 툴 온지 우 고 예 수를 다 리고 훈 꾼에 보이니 일
홈은 꼴 꼴 타 라 친 긴 즉 두 꼴잇는 꾼 이 라 몰약 으로 술에 화호 거슬 주니 뱗지
인터 라 십 치 툴에 뭇질 하 고 그 옷술은 미 무어 술이 데 물체 비하니 써 진시
말이 라 십 치 툴에 뭇질 하 고 좌 목 온 그 우에 써 가로디 유디 인 왕 이 라 하 고

도 함색 두 강도 를 십진 틀에 못질 험니 흐나은 자 편에 험니 고호나온 우편에
호니 지니는 자 육 험니 여 멀이 를 혼들어 가로디 성년 온 헐어 사흘에 셔 올 자는
이제 스사로 구완 험니 여십진 틀 노조 차니 리라 험니 괴제사 양파 션비 도호이 맛
치 괴 롱 험니 여서로 가로디 디 말온사 룸은 구완 험니 괴 농히 스사로 구완 치 못호
다 이 살일 왕기리 쓰토노이 제십진 틀 노니 려우리로 보고 믿게 험니 라 험니 괴갓
치 못질 험자도 험 육 험니 더 라오시에 멋쳐 오은 싸이다 어두워 미시에 널으 터
니 미 시 말을 당 험니 여예수 크게 소리 험니 가로 샤디이 되이 되라 마사 박다니
라 험니 신 긴 죽니의 하나 남니의 하나 남엇지 나를 떠나니 앗가 험미 라 젓
티 셋던 자 흑듯 괴가로 디 티이니 아를 불운다 험니 한사 룸이 달아 가초으로
썩 히 융에 적서 같식에 묵거 주워 마시라 험니 괴가로 디 두워 두라이니 아와 셔
취 험니 여너리라 보자 험니 더라 예수 콘소리로 불으 괴 운이 쏟어 지니 성년 포
장이 우으로 봇터 알에 새지 씨여 져 둘이 되거 날파 총이 암페 셔서 그이 갓 치
괴 운 쏟어 지 물보 괴 가로 디 이사 룸이 실노 하나님의 아달이라 험니 더 라도 부
인 데리 멀니 션보 는 터 그 중에 막다년의 마리암파 쇼년 암파요 시의 어암

마리암파살노미가이소니곳예수가니니에이슬션에좆차일을옛투던쟈
오도열어부인이이스니곳함씨예루살임에가던쟈더라.이날은절고예비
호는날이니곳사밧일전날이라.교로아리마더인요셉온존귀호지상이오
도하나님의나라온사모호눈쟈라와서당당히빌나빠의게들어가예수의
시신을구호니빌나토그이무죽으물고이히비거그파총을불더물온더죽
온지올인지라파총으로말무암아알고시신으로썩요셉을주니요셉이가
는뵈를사고시신을취하여너리워싸셔반석에판바무덤에장사호고돌을
묘문에굴니더라막다닌마리암의파묘시의어맘마리암이그둔바꾹울보
터라

말곳복음례십륙장

사밧일이지니니막다닌의마리암파야곱의어맘마리암파살노미가향노
룰사가지꼬와셔그시신에발으고져흐여사밧일첫날일죽이히들녁에무
덤에가셔로말하되뉘가우리를위해여둘온굴벼묘문에썩낫느뇨호니그
돌이심히크마라발이보니돌이옴겼는지라무덤에들어가한쇼년이올운

편에 안정는 딘 흰 옷슬님으로 물보고 놀니 나가로샤 딘 놀니 지말나 너희나 살
 잇 예수십자틀에 못질한쟈를 찾는다며 날여여고잇지온으니 그 두엇던 곳
 올보고 다못각 그데자파피들의 게더너희암셔 가니니에 가스물꼬호라거
 괴서보리니더너희게불은바갓타라호미부인이무덤으로나와 말아나는
 딘 썰며 혼나사름의 게말치못호문그무서워호물인호미더라사밧일첫날
 시벽에 예수 다시날어만져막다난의마리암의 게나타니 꾼더로말무암
 아닐굽귀신을솟촌쟈라며 가셔볼니함씌호던쟈의 게고호니정히슬피우
 눈더뭇사름이 그살물듯꼬부인보물밋지온이호더라 그후에 데자중두사
 룸이 촌에 갈색에 예수달은모양으로나타니 두사름이 가 그남이사름의
 게고호되도훈밋지온타라후에 열호데자듯게안정는 딘 예수나타나그밋
 지온음파마암완피호물최망호문그 다시난후에 본쟈를밋지온으로 물인호
 미라또갈아샤 딘 너희불은던하에 가복음울오은세상에던호라밋꼬밥팀
 례를밖는쟈는구완호꼬밋지온는쟈는죄를데호리라밋는쟈는모단징조
 가족추리니 꾼니의 일홈으로써 귀신을솟고방언울말호꼬비암울잡우묘

혹독한 물마실지라도 쇠호^쇠희가 입고 손을 봉^봉하는 쟈의 게^게온 찰한^{찰한}죽나^나으리
라^라하^하더^더라^라주^주의^의로^로터^터부^부러^러말^말을^을맛^맛추^고하^하늘^늘에^에접^접하^하물^물넘^넘어^어올^올나^나가^가하^하나^나님^님
의^의우^우편^편에^에안^안고^고데^데자^자는^는나^나가^가각^각곳^곳에^에도^도를^를뿐^뿐하^하느^느니^니주^주함^함씨^씨향^향하^하여^여좆^좆는^는바^바그^그
징^징죠^죠로^로썩^썩도^도를^를간^간중^중하^하더^더라^라아^아멘^멘

29